



코오롱FnC가 '리버스(Re:birth)'를 내세운 지속가능 패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ESG 경영에 나선다. 스타필드 코엑스에 위치한 레코드 수선·리폼 서비스 '박스 아틀리에', 제주 탐동 소재 코오롱스포츠의 친환경 매장 '숲속 리버스', 중고 거래 서비스인 '오엘오 릴레이 마켓'(왼쪽부터). 사진제공 | 코오롱FnC

“중고거래·수선 서비스부터 친환경 매장까지”

코오롱몰과 중고거래 서비스 오픈 향후 럭키슈에프·쿠론 등으로 확대 수선·리폼 '박스 아틀리에' 서비스 맞춤형 업사이클링 서비스도 제공 기존 건물 활용한 친환경 매장 인기

코오롱FnC가 독특한 경영철학인 리버스(Re:birth, 재고를 다시 활용하다)를 내세운 지속가능 패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고의 재활용을 포함한 모든 자원의 순환 구조를 목적으로 한다. 리버스를 패션 특화 솔루션으로 강화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ESG 경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고 거래 서비스로 ESG 실현

먼저 7월 코오롱몰과 함께 중고 거래 서비스인 '오엘오 릴레이 마켓'을 오픈했다. 자사 브랜드 제품을 중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로, 국내 패션 기업으로는 첫 시도다. 중고 거래를 통해

패션 상품의 사용주기를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4월 코오롱몰을 통해 매입한 코오롱스포츠 중고 상품을 철저한 검수 및 복원 과정을 거쳐 합리적 가격에 재판매하고 있다. 향후 럭키슈에프, 쿠론 등의 브랜드로 중고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이 자사 브랜드의 중고 제품을 판매하면 코오롱몰에서 새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코오롱(EkOLON) 포인트를 제공한다. 회사 측은 “구매, 사용, 판매, 보상으로 이어지는 자사물 순환 모델 구축하게 됐다”며 “자사 제품을 재판매하는 친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중고 거래를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6월에는 소셜 벤처기업 케이오에이(KOA)를 인수했다. 2014년 친환경 브랜드 '르 캐시미어'를 전개하며 자원 순환 및 지속가능성 등을 고민해 온 기업이다. 향후 케이오에이의 사업 개념을 도입해 패션업계에 울림을 줄 수 있는 ESG 경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는 게 코오롱FnC 측 설명이다.

●리버스 테마 공간도 '인기'

리버스를 테마로 한 공간도 주목받고 있다.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레코드가 3월 서울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에 오픈한 수선·리폼 서비스 '박스 아틀리에'가 대표적이다. 수선과 리폼을 전문 매장에서 경험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옷을 더 오래 입자는 취지다.

수선 리폼 전문가가 상주해 고객과 1:1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진행한다. 일반 수선뿐 아니라 오래되거나 싫증난 옷을 전혀 새로운 디자인으로 탈바꿈해주는 맞춤형 업사이클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도는 코오롱FnC 레코드 브랜드 매니저는 “기존 옷을 버리지 않고 다른 형태로 오래 입는 것은 레코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성과 맞닿아 있다”며 “박스 아틀리에에는 이런 지향점을 고객에게 쉽게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코오롱스포츠가 1월 제주 탐동에 선보인 친환경 매장 '숲속 리버스'도 인기다. 'WASTE LESS, WEAR LONGER(적게 버리고, 오래 입자)'를 슬로건으로, 코오롱스포츠의 모든 친환경 활동을

담았다.

친환경 업사이클링 공간을 지향한다. 별도의 마감재를 최소화하고 건물 자체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했다. 기존 건물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버려지는 것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테이블, 선반, 의자 등 집기류는 제주도에서 수거한 해양 폐기물을 활용해 제작했다.

자체적으로 업사이클링한 '코오롱스포츠 리버스' 상품도 선보인다. 코오롱스포츠의 1, 2년차 재고를 리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한경에 코오롱FnC CSO 전무는 “지난 10년간 진정한 지속가능 패션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전했고, 수많은 실행을 통해 많은 경험의 축적과 성공방정식을 만들어 왔다”며 “이제는 그 진정성에 실행의 속도를 붙여 독자적인 가치를 만들고 진정한 지속가능 패션기업으로 치고 나갈 것이다. 업계를 초월적으로 선도하는 ESG 패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출시 30주년 맞이한 '농심 오징어짬뽕' 누적 판매량 17억개 돌파...이벤트 진행



올해 출시 30주년을 맞이한 농심 오징어짬뽕(사진)이 누적 판매량 17억 개를 돌파했다.

1992년 선보였으며, 출시한 달 만에 530만 봉지가 판매될 정도로 초반부터 인기를 끌었다. 연평균 360억 원 가량 팔리며 전체 라면 시장 판매 순위 20위 내에 이름을 올리는 농심의 스테디셀러 제품이다. 존속하게 씹히는 오징어 건더기의 식감과 깊고 얼큰한 짬뽕국물 맛이 인기 비결이다.

출시 30주년을 기념해 15일까지 자사 인스타그램에서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댓글로 친구를 태그하고, 축하메시지를 남기면 참여 가능하다. 경품으로 총 30명에게 오징어짬뽕 선물세트(사진)를 제공한다. 회사 측은 “오징어가 짬뽕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점에 착안해 큼직한 오징어 건더기와 함께 구운 오징어의 풍미를 담은 국물로 오징어짬뽕을 완성했다”며 “소비자에게 더욱 사랑받는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농심은 건강기능식품 '라이필 바이탈 락토'를 출시했다.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라이필 바이탈 락토 키즈'와 온 가족을 위한 '라이필 바이탈 락토 패밀리' 등으로 구성했다. 미국 다니스코사의 유산균과 농심이 개발한 특허 유산균을 배합했다. 장내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 등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극대화했다. 정정욱 기자

“동형 구조 ‘암호 스키마’ 원천 기술 보유” 암호 솔루션 개발 기업 ‘포체인스’ 주목



암호 솔루션 기업 (주)포체인스(대표 이정훈·사진)가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암호, 인공지능(AI) 관련 알고리즘 개발 및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보안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정보보안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암호 스키마 연구자, 웹 개발자, 보안 플랫폼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눈길을 끈다.

포체인스는 국내 암호 솔루션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동형 구조 기반 암호 스키마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모듈러 형식 암호(MFC), 타원곡선 동형암호(ECHC), 유사 동형 암호(PHC) 등 세 가지 암호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출원도 완료했다.

포체인스는 고객 정보보호 솔루션 기술을 개발해 공공기관, 금융사, 바이오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접점선암 바이오마커 개발사 '프로카젠'과 유전체 데이터 암호화, 보안성 확보, 의료 데이터 활용성 극대화 관련 알고리즘 및 데이터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정훈 대표는 “프로카젠과 업무 협약을 통해 포체인스의 목적형 암호화 스키마 기술이 금융, 헬스케어 사업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됐고 향후 두 사업 간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SK하이닉스, 업계 최고층 238단 낸드 개발...내년 상반기 양산

이전 세대보다 데이터 전송 50% 빨라 생산성 34% ↑...내년 1Tb 선별 예정

SK하이닉스가 업계 최고층 낸드 개발에 성공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238단 512Gb(기가비트) TLC(트리플 레벨 셀) 4D 낸드플래시 샘플을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 양산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낸드플래시는 적층 단수가 높을수록 같은 면적에서도 고용량을 구현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개발한 낸드 96단부터 기존 3D를 넘어선 4D 제품을 선보여 왔다. 4D는 3D보다 단위당 셀 면적이 줄어들면서도 생산효율은 높아지는 장점을 가진다.

이번 238단은 단수가 높아진 것은 물론, 세계 최소 사이즈로 만들어져 이전 세대인 176단 대비 생산성이 34% 높아졌다. 이전보다 단위 면적당 용량이 커진 점이 웨이퍼당 더 많은 개수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238단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2.4Gb로 이전 세대보다 50% 빨라졌다. 또, 칩이

데이터를 읽을 때 쓰는 에너지 사용량은 21% 줄어 들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개막한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2'에서 신제품을 공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최정달 SK하이닉스 부사장(낸드 개발담당)은 “당사는 4D 낸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238단을 통해 원가, 성능, 품질 측면에서 글로벌 톱클래스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PC 저장장치인 클라이언트 SSD에 들어가는 238단 제품을 먼저



SK하이닉스가 개발한 세계 최고층 238단 4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진제공 | SK하이닉스

공급하고, 이후 스마트폰용과 서버용 고용량 SSD 등으로 제품 활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512Gb보다 용량을 2배 높인 1Tb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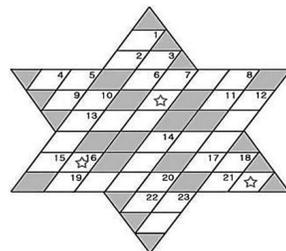
■ 스토쿠문제

		7	2	4				
			6	9	1			
1		9			6			8
		8	2		3		4	
3	7						5	2
	9		5		7		6	
9		8				5		1
			1	7	9			
		3	5		2			

■ 스토쿠정답

8	6	2	9	5	8	1	7	4
9	8	1	6	7	1	5	3	2
1	2	9	2	8	7	8	9	6
8	9	1	7	8	5	2	6	3
2	5	8	7	1	6	9	2	8
7	3	6	8	9	2	1	8	5
8	8	9	5	7	2	6	2	1
5	2	1	6	9	7	8	8	3
6	1	7	8	2	1	7	9	9
2	1	9	7	7	6	8	8	8
8	8	2	1	6	7	9	5	2
7	9	6	8	5	1	2	7	2
7	5	9	8	6	2	8	7	1
1	2	8	7	9	9	2	8	5
6	7	8	7	1	2	5	9	9
9	2	7	1	2	9	9	6	8
9	6	1	9	7	8	8	2	2
8	8	2	6	9	2	7	9	1

■ 낱말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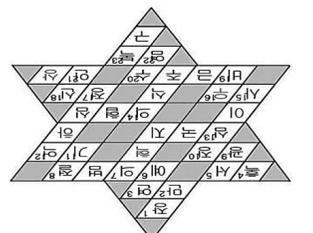
■ 가로 열쇠 02. 식물의 줄기가 널리 뻗는다는 뜻. 04. 몹시 심한 더위. 06. 일상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예의와 절제. 09.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은 빈터. 11. 이전의 인상·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생각해 냄. 13. 중국 진나라

때에, 진수가 지은 위·오·촉 삼국의 정사. 14. 체면을 중히 여기고 신의를 지키는 마음. 15. 함께 일하는 동료. 17. 마음의 자세나 태도. 19. 날짐승과 길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 21. 물건 값, 봉급, 요금 따위를 올림. 23. 아름다운 여자가 잘 따르는 북.

■ 세로 열쇠 01. 필요한 것을 사거나 만들거나 하여 갖추. 03. 대중 앞에서 음악, 무용, 마술, 쇼 따위를 공연함. 05. 기대하는 일에 대하여 나타난 희망의 징조를 이르는 말. 07. 가족과 비슷하게 만든 종이. 08.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계절의 표준이 되는 것. 10. 장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 12.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그러하는지 알 수 없음. 14.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 16. 비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간을 이어 붙이면 스타의 이름이 됩니다.



플레이 스토어 - 경품광고퀴즈, 날마다운세, 매직스도쿠